손, 프리시즌 첫 경기 멀티골… 새 시즌 기대되네

〈흥민〉

토트넘, 입스위치 타운과 친선경기
전반 10분·29분 연속골…3-0 완승

손흥민이 23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멀티 골'을 폭발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손흥민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입스위치 타운(3부리그)과의 프리시즌 첫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만 뛰고도 두 골을 넣어 토트넘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에 자신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1개·11골 10도움) 및 공식 경기 최다 공격포인트(30개·18골 12도움)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시즌을 마치고 지난달 말 귀국해 국내에서 자가 격리를 포함한 짧은 휴식을 취한 뒤 17일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팀 훈련에 합류해 새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리그1(3부) 소속 입스위치를 불러들여 무관중 경기로 치른 프리시즌 첫 친선경기에서 전반 6분 라이언 세세뇽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델리 알리가 오른쪽 측면에서 찔러준 공을 세세뇽이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지었다.

이후 손흥민의 득점포가 거푸 터졌다.

전반 10분 손흥민의 압박에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에 합류한 덴마크 국가대표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차단했다. 이후 알리가 손흥민에게 바로 연결했고, 손흥민이 골문 정면에서 골키퍼를 피해 오른발로 가볍게 차 넣었다.

손흥민은 전반 29분 다시 골 맛을 봤다.

수비수 후안 포이스가 후방에서 공을 한 번에 내주자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손흥민이 골 지역 오른쪽으로 달려들어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오른발 슛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을 3-0으로 리드한 채 마친 토트넘은 후반 시작하며 손흥민을 비롯해 골키퍼 위고 로리스, 수비수 벤 데이비스와 포이스를 교체했다.

토트넘은 후반에는 추가 골 없이 경기를 마쳤다. 토트넘은 28일 레딩, 29일 버밍엄시티와 프리시즌 경기를 이어간다. 레딩, 버밍엄시티는 챔피언십(2부) 소속 팀이다.

프리미어리그 2020-2021시즌은 현지시간 월 12일 개막해 내년 5월 23일 최종 라운드를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74세 히딩크의 도전

퀴라소 대표팀 감독
기술위원장직 동시에 맡아

거스 히딩크(74·네덜란드) 감독이 네덜란드령 퀴라소 축구대표팀의 사령탑과 기술위원장을 함께 맡았다.

네덜란드 일간지 '더 텔레흐라프'는 22일(한국시간) "히딩크 감독은 결코 사령탑직과 이별을 고할 수 없었다"라며 "74세의 히딩크 감독이 퀴라소 대표팀의 감독직과 기술위원장직을 동시에 맡았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히딩크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계약했다"라며 "퀴라소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 대표팀을 더 전문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진출을 지휘한 히딩크 감독은 2018년 11월 도쿄올림픽 준비에 나선 중국 U-23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지만 성적 부진으로 지난해 9월 경질됐다.

74세의 고령으로 사령탑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도 히딩크 감독은 퀴라소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또다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퀴라소는 카리브해 남부에 위치한 네덜란드령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80위다.

히딩크 감독은 폭스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퀴라소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전해왔다"라며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체육회 김행직·최호일 '환상의 짝꿍'

전국당구대회 복식, 경남 허정한·황봉주 30-22로 꺾고 우승

전남체육회 소속 김행직(왼쪽)·최호일이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당구대회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김행직·최호일은 지난 20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제16회 문화부장관기 및 2020 경남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캐롬 3쿠션 복식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결승에서 홈팀 경남의 허정한·황봉주를 30-22(18이닝)로 꺾었다.

김행직·최호일은 5이닝까지 1-8로 끌려갔지만 7이닝에서 김행직의 선전으로 8-5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9이닝에서 10-10 동점을 만든 후 엎치락뒤치락 하는 접전 끝에 11이닝에 6점을 몰아치며 16-12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꾸준하게 포인트를 쌓아가며 18이닝만에 30점 매치포인트를 달성,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김행직·최호일 조는 이번에 팀을 이룬 이래 10번의 도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동안 이들의 최고성적은 공동 3위였다.

한편, 포켓 9볼 복식에 출전한 장문석·서서아(전남체육회) 조는 준결승에서 이준호-이우진(강원) 조에게 4-8로 패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교 정구 강자 '동신고'

중고연맹회장기 소프트테니스 정정일 2관왕…동신고, 금 2·동 2

광주 동신고 정구팀 에이스 정정일(3년)이 고교 1인자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정정일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솔밭정구장에서 열린 제5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인 단식 결승전에서 명곡고 황태영을 세트스코어 4-1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서 문경공고 오승언을 4-1로 꺾은 정정일은 이날 결승에서 강력한 서브와 스트로크를 앞세워 우승을 차지했다.

정정일은 파죽지세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 1회전 순창제일고 서범규(4-1)과 32강전 인천고 김재현(4-0), 16강전 문경공고 박진우(4-2), 8강전 인천고 김길현(4-0)을 잇따라 제압했다.

정정일은 전날 정운기와 호흡을 맞춘 개인 복식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들은 개인 복식 결승에서 인천고 김길현-이시원 조를 4-1로 꺾었다. 이들은 지난해 아시아정구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된 바 있는 최강 복식조로 이번 대회에서도 유감 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동신고 문정인(2년)은 개인 단식 준결승에서 명곡고 황태인에게 1-4로 져 동메달을 땄다.

동신고는 단체전에서 동메달에 그쳐 대회 2연패는 무산됐다. 단체전에는 정정일·안하윤·정운기(이상 3년)·문정인·주형찬·조성준· 문승상(이상 2년)·강주한(1년)이 뛰었다.

이들은 준결승전에서 인천고에 1-3으로 무릎을 꿇어 3위를 차지했다.

동신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손영호 동신고 감독은 "단체전에서 대회 2연패를 놓쳐 아쉽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여서 보람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각종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역전의 명수' 이태희

매경오픈,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
3타 뒤지다 막판 4개홀서 1타차 역전

이태희(36)가 1982년 창설된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태희는 23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파70·7001야드)에서 열린 제39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0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199타의 성적을 낸 이태희는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1억 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태희는 GS칼텍스 매경오픈 사상 최초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14번 홀까지 선두 조민규(32)에 3타를 뒤져 2연패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이태희는 이후 남은 4개 홀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태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최종 라운드 12번 홀까지 야네 카스케(핀란드)에게 2타 뒤처져 있다가 연장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이태희는 시즌 상금 1억 6953만원으로 1위 김성현(1억 9589만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대상 포인트에서도 1321점으로 1442점의 이수민에 이어 2위가 됐다.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는 2승이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 우승이 없는 조민규는 다 잡았던 우승을 놓치고 이준석(호주)과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 2라운드 선두였던 강경남(37)은 2타를 잃고 최종합계 7언더파 203타를 기록, 김비오(30) 등과 함께 공동 4위로 밀렸다.

지난해 9월 대회 도중 갤러리를 향해 부적절한 손동작을 해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한 김비오는 사흘 내내 60대 타수를 치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2관	오케이 마담
3관	강철비2: 정상회담, 나의 소녀시대, 69세 빅샤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4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5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6관	오케이 마담
9관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신혼여행 허리케인~ 사라진 야베! 나의 소녀시대
7관 씨네커플	오케이 마담
8관 씨네커플	시크릿 가든, 반교: 디텐션, 반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제3회 GAC그라제 축제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9. 2.(수) ~ 3. (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